

# 담배연구의 최근 동향 :

## 담배의 위기와 위기극복을 위한 가능성

### 황 건 중

#### KT&G 중앙연구원

CORESTA 등의 국제회의에 담배관련 연구논문 발표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추세이다. 최근 담배연구는 애연가에게 덜 해로운 담배(LHC)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LHC의 개발을 위해서는 표준으로 삼는 시점의 결정이 필요하고 소비자의 호응을 얻어야한다. 담배의 유해성을 감소하기위한 담배연기에 대한 연구는 개별 연기성분이 갖는 효과와 동시에 혼합물이 갖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담배에서 유해성분을 없앤다는 것은 순수한 과학적 의미와 생산관리 측면에서는 좋으나 실제적으로 애연가에게 미치는 효과는 알 수가 없다. 현재 4,800개의 담배연기성분 중 몇백개에 대한 유해성 자료가 있고 나머지는 모르는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유해성을 감소를 위한 연구는 연기중의 tar를 감소시키는 연구가 바람직하다. 담배 첨가제에 의한 담배의 좋지않은 영향을 염려하는 경향이 있으나 많은 연구결과 이러한 염려를 해소할 수 있었다. 담배연기 중의 휘발성 유해성분의 제거를 위해서는 탄소필터와 같은 특수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특수필터의 적용은 연기화학, 생화학평가, 역학조사 등을 통한 효과 증명이 있어야한다. 앞으로의 연구는 잎담배의 TSNA 감소뿐만아니라 단백질질을 감소시키는 연구가 경작분야에서부터 수행되어야할 것 같다.